

전남대, 가짜 학술대회 참석 교수들 조사

전남대학교가 이른바 사이버 학술단체 와셋(WASET·세계과학기술학술학회)이 주관한 '가짜 학술대회'에 참석하거나 논문을 제출한 교수들을 상대로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남대는 연구 윤리나 연구비 사용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한 뒤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24일 전남대 등에 따르면 전남대 연구처는 최근 '광주·여수캠퍼스 교수 2명이 연구 윤리를 어겼다'는 의혹을 제기한 보도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와셋은 매주 세계 주요 관광도시에서 가짜 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제대로 된 심사 없이 논문을 게재하거나 논문 발표 기회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A 교수는 대학원생·학부생 5명과 함께 지난달 18일 국제 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탈리아로 출국했다. 1차례 학술대회를 거친 뒤 지난달 21일 열린 와셋 주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기 위해 베니스로 향했다.

하지만 A 교수 등은 베니스 한 호텔에서 열린 와셋 주관 학술대회에 3개 연구팀을 등록해놓고 발표장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과제를 수행 중인 A 교수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연구용역 논문 3편(한국·태양광 발전 관련)을 학회에 제출했으며, 전남대 측의 심사를 거쳐 연구비 법안카드로 출장비와 학술대회 등록비 등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B 교수는 해당 학술대회에서 자료 없이 한국 법 문화 관련 논문 발표를 반나절 만에 끝냈고, 허술한 심사 체계 탓에 특정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영터리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학술대회는 1박 2일 일정이었지만 반나절 만에 끝났고, 허술한 심사 체계 탓에 특정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영터리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대는 'A·B 교수는 학술대회 이후 소요 경비와 등록비를 환급했다. 연구비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남대는 A·B 교수를 상대로 학술대회에 논문을 게재한 배경과 참여·불참 경위를 조사한 뒤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전남대는 와셋 주관 학술대회에 참여한 다른 연구진이 있었는지, 이들이 연구 윤리를 위반하거나 연구실적을 부풀린 정황이 있는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전남대 관계자는 "학술단체의 운영 목적·취지를 세심히 살펴보지 않거나 실제 학술대회에 참여하지

연구윤리 위반 의혹·연구비 사용 부적정 여부 사이버 학술단체 와셋 주관...재발방지책 마련

많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학 연구 관리 체계를 검토하고, 유명 학술단체나 컨퍼런스에 참여하지 않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교수는 "와셋 측과

논문을 주고받는데 3주 가량 걸렸고, 유명 학술대회인 줄 몰랐다"며 "학회 시작 전에 발표장을 찾았으나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학생들이 발표를 부담스러워 한 상황이라 참석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도교수로서 작은 실수를 했다"고 밝혔다.

B 교수도 "사회과학 특성상 국제 학술대회가 자주 열리지 않는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한국 법 문화와 관련한 논문을 제출했고, 학술대회 참석 직후 영터리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주최 측에 항의까지 했다"고 전했다.

조인호 기자



어려운 이웃 위한 따뜻한 사랑 '헌혈'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직원들이 여름철 부족한 혈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기 위한 단체헌혈을 하고 있다.

'일탈 또 일탈' 전남경찰 도넛은 기강 하이 도마

전남경찰청 소속 일부 경찰의 일탈 행위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범인도포와 명예훼손·폭행 사건에 연루되는가 하면 사건 관계인과 동거래로 구설에 오르는 등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거액의 취업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수배된 고교 동창의 범죄사실을 뒤늦게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범인도포)로 전남 모 경찰서 간부 A 경찰관을 입건했다.

A 경찰관은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특정직 간부로 지내며 감언이설과 함께 취업희망자 29명을 속여 이들로부터 총 19억여 원을 받아 쟁건 혐의를 받고 있던 B(48)씨의 범죄 및 도피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와 고교 동창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경찰은 7개월여 동안의 추적 끝에 B 씨를 붙잡았다.

앞선 지난 3일 전남경찰청은 동료 경찰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무고)로 해남경찰서 소속 C 경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C 경위는 지난 4월 '같은 경찰서 D 경위가 6·13 지방선거 모 군수 후보에 출사기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D 경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정보관인 C 경위는 '모 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한 D 경위가 출사기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소속 부서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에는 해남 모 식당에서 해남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이 50대 식당 주인의 얼굴을 한 차례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해당 경찰관은 식당 주인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경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있는지 살핀 뒤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자신이 맡은 절도사건 관계인과 동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난 목포경

찰서 소속 E 경찰관이 자체 징계를 받기도 했다.

E 경찰관은 지난 1월 자신이 담당한 절도사건 내사 단계에서 용의자로 의심받던 사람에게 500만 원을 빌렸다 3개월 뒤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E 경찰관은 관련 절도 사건 수사 끝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지난 4월 이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이후 돈거래와 사건 내사종결 간 의혹이 일자 목포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청문감사관실은 E 경찰관이 실제 돈을 빌렸다 갚은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사건 무마를 대가로 돈 거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E 경찰관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빌렸다. 맡은 사건은 원칙과 절차대로 처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경찰은 경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E 경찰관을 징계하고, 지역 파출소로 전보조처했다.

김정환 기자

5살 학대 혐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입건

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5살 원아를 괴롭힌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지역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35·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9시30분께 지역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B(5)군의 귀를 잡고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동복지시설 조사에서 'B군이 물어본 말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화가 나 교실에 5분 가량 세워둔 뒤 귀를 잡아 괴롭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 부모는 '선생님이 무서워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는 아들의 말을 듣고 학대 정황을 의심해 경찰에 고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과 아동복지시설 조사 내용을 토대로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여죄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다른 원아들도 보육 교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사례가 있는지 밝힐 계획이다.

창원의 한 중학교 휴게실서 화재 발생

24일 오전 11시41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중학교 2층 여교사 휴게실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불은 휴게실 내부 20㎡와 냉장고, 에어컨 등 집기류를 태워 소방서 추산 2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약 30분만에 진화했다.

현재 학교는 방학 중이어서 인명 피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휴게실에서 폭발음이 들리고, 연기가 났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뺑소니 사망사고 내고 달아난 40대 검거

충남 당진경찰서는 24일 갖길을 건너던 80대 보행자를 자동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A(4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 21분께 당진시 면천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운전 중 갖길을 건너던 B(83·여)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근 CCTV 분석과 도주경로 등을 파악해 달아난 A씨를 사건 발생 3일 만에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뒤 무서워서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 불질러 주인 전신화상 입힌 40대

편의점 주인과 시비가 붙자 불을 질러 화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40대 중반 남성 김모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2시15분께 강동구 성내동의 편의점에서 점주를 향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저지른 방화로 인해 편의점 주인 최모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30여분만에 꺼졌으나 편의점 점포가 완전히 불에 탔고 25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김씨는 평소 자주 다니는 편의점에서 최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새벽 최씨가 자신을 무시했다며 말다툼을 벌인 후 화가 나 방화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여자화장실 '몰카' 30대 회사원 구속

인천 계양경찰서는 24일 휴대전화를 이용해 상가 여자 화장실을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회사원 A(31)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인천 계양구 지역의 상가 여자 화장실 6곳을 돌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22차례 상습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상가 여자화장실 참문을 통해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하다 한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경찰에서 "성적 충동으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차, 장기저리(3.0%, 1~2% 농지매입자금 용자 지원)

농지임대수탁사업
자경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전문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농민 등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재해 피해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장, 경영 정상화 지원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입 임대차 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